

순천보선 야권연대 민심도 혼전

시민 1000명 여론조사 2%P 오차범위 차이...찬반 논란 확산

박주선 최고 "확고한 원칙과 기준 마련해야"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와 관련,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미묘한 과정을 밟고 있다.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대한 조사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민주당 박주선 후보가 야권연대 추진 특위위원인 김재균 의원(광주 북)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순천지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순천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 찬성 비율은 33%로 집계됐으며 반대는 31%로

나타났다. 오차범위(±3.1%) 이내지만 야권연대에 찬성하는 순천 유권자들보다 찬성하는 순천 유권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응한 순천시민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들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야권연대를 위해 순천을 양보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41%로, 찬성(31%)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를 놓고 민주당 내부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일단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순천 시민이 차기 대선과 총선을 고려, '통 큰 결단'을 내렸으며 민주당은 이러한 순천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야권연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10% 차이가 불과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민심

의 흐름은 야권연대에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야권연대에 찬성하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순천 민심은 민주당이 희생해서라도 야권연대를 이뤄 차기 정권 창출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같은 순천 민심의 결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방적 야권연대 불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측에서는 이번 여론조사를 계기로 지도부가 야권연대에 대해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순천지역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보인다는 일반 순천 시민들의 의사가 찬반이 팽팽하다는 점에서 지도부가 보다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야권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야권연대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체계적인 야권연대를 위해서라도 이번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보다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병행하는 경선 방법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순천시민 여론조사에서 야권연대에 대한 찬성 비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만큼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 현실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생각보다 야권연대에 대한 순천 시민들의 찬성률이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순천 여론조사는 내부 참고용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중자본 광주에 특급호텔 짓는다

베이징 방문 강운태시장- 하이난녹보석여유개발공사 MOU

광주에 중국자본이 투자한 5성급 특급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7일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강운태 시장이 지난 25일 하이난녹보석여유개발공사(대표 정화선)와 5성급 호텔건설을 위한 협력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이난녹보석여유개발공사는 중국 부동산 개발 및 관광레저업체로, 지난해부터 광주시와 호텔 건설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MOU에 따라 광주에 객실 300개 규모의 5성급(특1급) 호텔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화선 대표는 하얼빈 출신 조선족으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업을 해왔으며 중국의 부유층을 겨냥, 하얼빈에 연중 휴일 없이 운영되는



강운태 광주시장은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하이난녹보석여유개발공사 대표 정화선씨와 특급호텔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골프장을 최초로 개설해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부동산 개발과 여행사업 등 여러 분야에 진출했으며 중국의 500대 화상(華商)기업, 500대 화상부호, 100대 화상기업 등의 경제인으로 구성된 세계결핵화상협회 이사진을 맡고 있는 등 중국과 세계 경제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특급호텔이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기업의 투자에도 훌륭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회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야권연대 논의 급물살 탈 듯

민주노동당 순천보선 후보 김선동씨 선출

시민단체는 범민주 단일후보 추대 움직임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노동당 후보로 김선동 민노당 전 사무총장이 선출되면서 향후 야권연대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노당은 일찌감치 후보를 선출해 야권연대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범민주 단일후보 추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야권연대가 순탄치만은 않은 전망이다.

민노당 순천시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이정치 당 대표 등 당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후보 선출대회를 열고 김 전 사무총장이 후보로 선출됨을 선언했다.

지난 23일부터 인터넷과 별도로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된 현장 투표에는 순천 지역 선거인단 342명 가운데 244명(투표율 71.3%)이 참여했으며, 김 후보는 144표(59%)를 얻어 100표(41%)를 획득한 김유욱 전 순천 민중연대 대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후보는 "호남에서 진보정치의 신뢰를 일으키겠다"며 "야권연합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지역에서도 야권연합을 이뤄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김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대책본부

를 구성해 야권연대 주도권을 쥐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순천 무공천'에 대한 당내 반발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민노당의 야권연대에는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비후보가 무공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야권연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만만치 않은 당내 후속공에 시달릴 수 있고, 민노당은 내년 총선에서 야권연대에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입지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양당 모두 야권연대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 시민사회단체는 범민주 단일후보로 이학영 전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인데다가 그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범민주 단일후보로 적합하다는



민주노동당 순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 선출된 김선동 전 사무총장.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여수엑스포 주제가 섬마을 아이들이 부른다 김형석씨 작곡 맡아

유명 가요 작곡가인 김형석씨가 전남지역 섬마을 소년소녀들과 함께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제를 제작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박람회 주제가 제작 사업자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우선협상 대상으로 ㈜엘에이치를 선정했다.

(주)엘에이치는 마케팅, 뮤직서비스, 콘텐츠 기획 등을 맡고 있는 광고 기

획 대행사로 어린이 음악교육은 김형석 작곡가,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은 오민호 총감독을 투입할 계획이다.

작곡가 김형석은 아이유, 신승훈, 성시경, 솔리드 등과 함께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 낸 것으로 유명하며, 오민호 감독은 승용차 광고, 안드레아 보렐리, 셀린디옹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콘서트를 기획했다. 이들은 이번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역 여수지역 섬마을 초등학생 소년소녀들과 문화예술 체험과 음악 교육을 함께하며 주제가 제작을 이끌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거 국제행사는 작곡가에게 위탁해 주제를 만들었으나 여수엑스포는 섬마을 소년소녀들에게 최고의 음악교육을 제공하고 놀이와 교육을 통해 주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며 "제작 과정은 영상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돼 엑스포를 홍보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영광서 전기자동차 타 보세요

군청 청사·광광지 등 4곳 전시·홍보관 설치

친환경 전기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영광군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전시·체험 홍보관을 운영한다.

영광군은 27일 주요 관광지와 군청 청사 현관에 전기자동차 전시·체험 홍보관을 운영해 주민 관심에서 호남에서의 야권연대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당을 앞두고 진보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범민주 단일후보로 적합하다는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불갑사 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 한국수력원자력 한마음공원 내 유리온실, 군청현관 등 4곳에 전기자동차 전시·홍보관을 설치했다.

홍보관은 전기자동차 정의, 구조, 변전사, 전기자동차 사용 시에너지 절감 효과, 전기자동차의 활용과 친환경성 등을 홍보하게 된다. 특히 불갑사 홍보관에는 전기자동차를 직접 시승할 수 있는 체험코너를 개설했다.

영광군은 앞으로 영광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의 우수성을 전시할 수 있는 상설 전시관을 마련해 전기자동차 산업을 이해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내달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거점 도시 유치를 준비 중인 영광군은 현재 4개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상태며 전기자동차 성능 연구소 역할을 하게 될 실·인증 센터 유치도 준비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제주도 관광열차 여행 고객사은행사

똑같은 제주도는 싫다. 올 봄에는 新제주관광 명소만 골라 탐방하는 한라산 관광열차여행으로 다녀오세요!

배타고 갈 필요 있나요? 왕복항공 제주도 여행 3박4일

상품1

올레길+新제주 관광명소 탐방 3박4일

₩179,000~ 매회 2명이상 출발보장!!

광주왕복항공

상품2

마라도 관광+우도유람선 3박4일

₩199,000~ 매회 2명이상 출발보장!!

최고 인기 상품

포함일정 : 곳자왈 생태숲 및 올레길 체험, 유리의성, 카메라야힐/평화박물관, 퍼시픽랜드, 휴애리자연생활공원, 제주 에코랜드 생태공원 관광 열차 체험, 제주조랑말체험, 휘닉스아일랜드 해양공원, 해녀촌

-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일반호텔(5-6인실), 관광차량, 식사 일정내 관광요금, 여행자보험
- ◆공통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팁(1인10,000원), 선택관광, 유가할증료 ※ 관광호텔 2인1실 이용시 30,000추가(1인)

※365일 제주도 항공권 확보 ※제주도 전지역 리조트 / 호텔 호남 총판 대리점 ※제주도 전지역 골프장 호남 총판 대리점 ※2박3일 패키지, 단체여행, 렌트카 자유여행, 관광지 할인쿠폰 판매 가능.

협찬 | **KOREAN AIR**
에어센터 투어클럽&스피드 골프 투어
062)382-8201